

인우재(隣愚齋) 이야기

한 희 철(목사, 강원 원주 단강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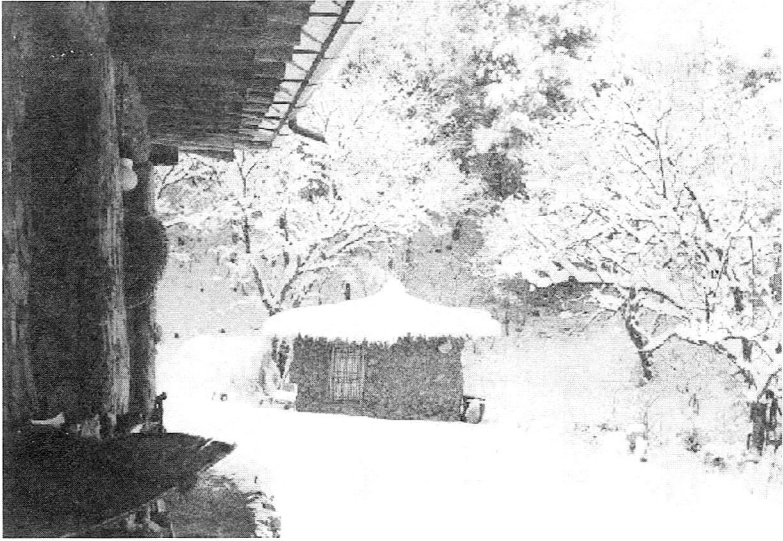
얕음과 가벼움

언젠가 아는 젊은 화가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보기에 같은 구도의 길을 걷는 스님들과 목사님들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스님들에게선 영적인 깊이가 느껴져요. 그에 비해 생활로 표현해내는 능력은 부족한 것 같구요. 반면 목사님들은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에 비해 영적인 깊이는 부족한 것 같구요.”

종교에 상관없이 교분을 쌓고 있는 화가인지라 목회자와 스님을 만날 기회가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다. 젊은 화가가 본 목회자와 스님의 차이점, 어찌 다 그러라 싶으면서도 수긍이 되는 점이 많았다. 우리의 ‘얕음’에 대한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은 내게도 늘 적지 않은 것이었다. 신부님들이 피정을 하고, 스님들이 동안거(冬安居)와 하안거(夏安居)를 지키며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시간을 소중하게 지켜가는 것에 비해 우리는 일방적으로 일에 쫓기고 있다고 여겨졌다.

웬일인지 목회자들은 일에 쫓겨 살 때가 많다. 심방과 설교 준비, 이런저런 모임과 행사, 그러다 보니 나를 돌아보며 고요



인우재에서 본 겨울 풍경 - 작은 건물이 기도실

히 침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내 영혼을 보살필 시간이 없이 다른 영혼을 보살피는, 우리는 참 지치기 쉽고 고갈되기 쉬운 길을 가고 있다.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자 심지 자체가 타는, 탈진을 경험하기가 쉽다.

설교만 해도 그렇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준비도 없이 또 다시 설교할 시간이 다가온다. 물이 고이기도 전에 물을 퍼내야 한다. 원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어느새 남이 퍼 놓은 물을 내가 길어낸 것처럼 전할 때가 있다. 고요한 묵상을 통해 얻은 말씀의 깨달음, 그 그윽한 향기와 과정은 마음속 바람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몇 가지 그럴듯한 포장술로 자신도 아는 자신의 얕음과 가벼움을 가리려 애쓰고 있다. 분주함이 경박함의 충분한 이유가 됨을 어렵지 않게 인정하게 된다.

어디 그게 '공간'이 없어 생긴 문제이겠는가만 그래도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선배 목회자들의 분주한 삶을 보면서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다른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시골로 내려와 목회를 하면서 내내 마음 한 켠에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뜻밖의 주춧돌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말 그대로 아쉬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었다. 더더군다나 시골교회 목회자로서 무엇인가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시골 목회를 하면서 인정해야 했던 것 중의 하나는 꿈이란 이루기도 힘들지만 포기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어렵다는 사실이다. 마음 속에 묻어두었다가 은퇴 후쯤 어디 후미진 구석에 작은 토방이라도 한 칸 주어진다면 그것 또한 과분한 일일 것이라고, 아쉬움을 그렇게 묻어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장인이 단강을 찾아왔고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이따금씩 원고를 쓰기도 하고, 강의도 나가고 하니 나만 좋다면 굳이 도시에 있는 교회로 나가려 하지말고 오히려 시골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다.

내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장인은 어디 조용한 거처를 지을 땅이 있으면 알아보라며, 땅을 구하는 일은 당신이 감당하겠노라 하였다. 일의 성사 여부를 떠나 고맙기 그지 없는 제안이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이해하고 힘이 되려는 귀한 배려요 더없이 따뜻한 격려였다.

아우처럼 여기며 가깝게 지내는 마을의 젊은 농사꾼 병철씨에게 이야기를 했고 병철 씨와 함께 찾아간 곳이 단강초등학교 교가에도 나오는 사방산 산자락 아래, 마을에선 가장 깊은 골짜기였다. 전에야 나무하러 다니는 발길에 윤이 반짝거렸다는 길이었지만 인적이 끊어진 지 오래, 길이라 할 것도 없는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니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나왔다. 아무리 조용한 거처를 마련한다 하여도 거리로 보나 길 사정으로

보나 주변 여건으로 보나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곳이었다. 한바퀴 둘러보고 사방산에서 내려올 때 병철 씨가 그제서야 생각난 듯 맞은편 골짜기를 가리켰고, 우리는 동네로 내려온 뒤 안골이라는 골짜기로 올라갔다. 전에 몇 번 아이들과 밤을 주우러 찾은 적이 있는 골짜기였다. 야트막한 산언덕 하나 사이로 마을과 떨어져있어 마을과 멀지 않으면서도 마을과는 구별이 되는 그런 골짜기였다.

마침 그 곳에 동네 사람이 팔기 위해 내놓은 밭이 있었다. 밭 주변으로 제법 큰 대추나무가 여러 그루 서 있었고, 나무 아래 떨어져 있는 대추를 겨울 양식 삼기 위해 다녀간 것인지 산토끼와 노루 등의 배설물이 남아 있었다. 희끗희끗 잔설(殘雪)이 쌓여있는 겨울철이지만 마음이 참 편해지는 곳이었다.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곳이었다.

330여 평의 밭을 400만원에 샀다. 물론 약속한대로 장인이 힘이 되어 주었다. 목회의 길을 걸으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고, 욕심을 부린다 해도 은퇴 후쯤 작은 오두막 하나를 생각했던 일이 생각보다도 일찍, 그리고 과분하게 주어진 것이었다.

이런 일이 소유욕 아닌가, 집착이며 욕심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떨쳐내기가 어려웠다. 그럴듯한 핑계일지 몰라도 ‘욕(慾)이라면 ‘무소유욕’을 향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정리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다. ‘무소유욕’이라는 역설의 말이 갖는 미묘한 떨림!

땀과 정으로

땅은 마련되었지만 집은 어떻게 짓나? 생각이 많았다. 그런 쪽의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다보니 막연하기만 했다. 집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어보았다. 오가며 독특하게 지은 집을 보아도 관심 있게 보게 되었다. 자료를 모으며 머릿속에, 혹은 공책 위에 이런저런 구상을 하여보기도 했다. 집에 대해 생각한

다는 것은 의외로 마음이 설레는 일이었다. 집은 단지 어떤 공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내면을 표현해내는 작업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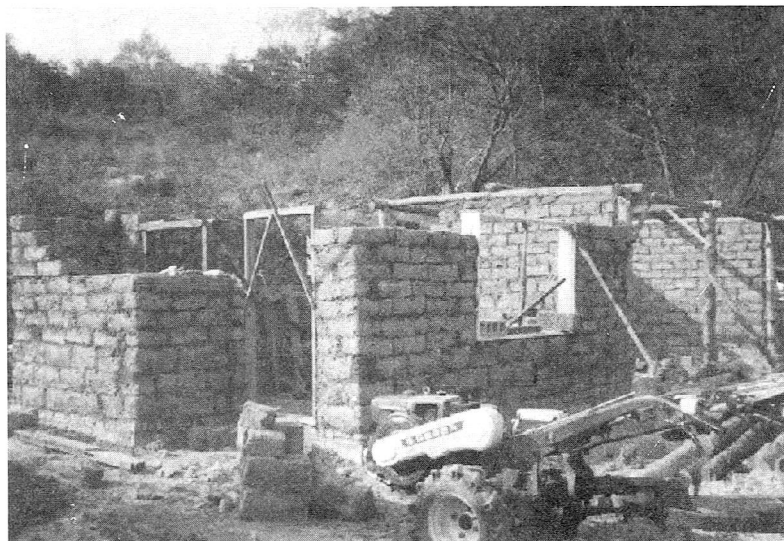
그러나 집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다. 어떤 방법으로 짓는다 하여도 짓는 만큼의 비용을 들게 마련, 그런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싶었다. 집을 땀과 정(情)으로 지어보고 싶었다. 미련하고 더디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 땀을 흘릴 만큼 흘리자, 그러면 되겠지. 아직 젊기 때문이었을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업자에게 평당 얼마에 맡기는 식으로가 아니라 더디고 서툴더라도 미련스럽게 땀을 흘려 마음이 녹아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수도자의 집은 흙과 나무로 지어야 한다는, 언젠가 읽은 글이 생각났다. 흙과 나무, 가장 자연스럽고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소재라 여겨졌다. 또한 그런 소재라면 시골에서는 자연스레 구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다. 집 짓는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들을 뜯어 보일러로 고치는 집이 있으면 뜯어낸 구들을 따로 모아 전해 주었고, 문짝이며 창틀, 주춧돌 등도 모아 주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일하는 도중에 크게 고생을 해야 할 일이었다. 구들 하나만 놓고 생각해 봐도, 요즘 돌로 된 구들을 어디서 쉽게 구하겠는가.

뜻밖의 커다란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동네에 들어와 벌목을 하던 사장이 우리교회 집사를 통해 집 짓는 계획을 전해 듣고 선 벌목한 소나무 두 차를 그냥 전해 주었다. 사실은 사기로 한 것이었는데 돈을 받지 않았다. 일하다가 나무가 모자라 임업사에서 사보니 거저 전해준 나무는 실로 엄청난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흙벽돌로 서재가 쌓아지는 모습

박종관, 변완수, 김재용, 최태준, 변학수 씨 등 환갑 연배의 마을 몇 몇 어른들과 함께 집 짓는 일이 시작되었다. 몇 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기에 농사꾼임을 증명하는 농지원부가 있었는데, 그것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소나무의 껍질을 벗겨낸 뒤 한 자(약 30 cm) 길이로 잘라 흙벽돌을 쌓듯이 벽을 쌓기로 했다. 마을에서 그렇게 집을 지어본 일은 없지만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이 모여져 일이 시작되었다.

서툴지만 정겨운

면사무소에 낸 설계도가 없진 않았지만 일은 서툴게 진행되었다. 사실 면사무소에 낸 것은 배치도였을 뿐 집 설계도는 박종관 씨와 변완수 씨가 공책 위에 연필로 그은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다가 일하다 새참 시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새참 이후엔 새로운 의견대로 일이 바뀌곤 했다. 방 한 칸 지으면 되지 했던 것을 건축 설계를 전공한 분의 조언을 따라 방 두 개를 만

드는 것만이 확실하게 정해진 큰 원칙이었다. 혹 잠을 나눠 잘 경우가 있을 지 모르니 최소한 방 두 칸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조언이었는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다.

집 모양과 공간 배치에 대해 그 동안 생각한 것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다. 마을 분들과 일하며 여긴 이렇게 해주세요, 저긴 저렇게 할겁니다 하는 것보다는 마을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따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었다. 마을 분들이 불편하고 가난한 살림이라 여겨 쉽게 없애버린 바로 그 옛 집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싶었다. 사실 나이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은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집이 아닌가. 집을 지으며 옛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를 함께 경험해보고 싶었다.

바쁜 일철 나서면 며칠 일 못하고 비오면 또 못하고, 일은 참으로 더디게 진행이 되었다. 일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모두 환갑 연배, 일은 이래저래 더딜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다 집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그러다 그런 생각마저 고쳐 먹었다. 그 모든 더딤이 집을 짓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그건 일종의 깨달음이기도 했다. 자신들이 외면한 옛집을 젊은 목사가 소중한 마음으로 되살리려 한다는 것은 마을 분들이 내심 고마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모이면 그제 집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 준 결정적인 것은 아마 '지경 다지기'였을 것이다.

집 지을 터야 포크레인이 닦았지만 따로 지경 다지기를 하기로 했다. 지경 다지기는 말 그대로 터를 다지는 일인데,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마을 사람 모두가 나서 지경 다지기를 해주었다고 한다. 마침 변완수 씨가 이웃 마을에 집 수리하는 일을 하러 갔다가 예전에 지경 다지기 할 때 쓰던 돌을 막 포크레인이 묻으려고 하는 걸 보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여 경운기에 두 개의 돌을 실어 온 것이 있었다.

남자들이 둘러앉아 벅짚으로 새끼를 꼬았고 새끼줄 여러 가닥을 굵게 엮은 후 그 줄을 지경 다지기를 하는 돌에 묶어 땀



마을사람들과 함께 지경다지는 모습

다. 여덟 개의 줄을 돌에 묶은 뒤 줄 하나에 사람들 서너 명씩 매달리니 그 모습이 특이했다. 기하학적으로도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냈다. 해소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박민하 할아버지가 선소리를 위해 어려운 걸음을 하셨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참으로 청(목소리)이 좋으셨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가 한 마디 선소리를 주면 다함께 힘을 모아 지경돌을 들어 올렸는데 그 큰돌이 아이들 공기돌 올라가듯이 공중에서 춤을 추곤 했다.

“이 집터를 닦을 때에 금도깨비 나왔느냐?”

왜 그런 소린 안 하나고 선소리꾼을 웃음으로 닦달하기도 하고,

“이 집터 닦을 때에 금부엉이 나와 날개짓 한 번에 억만 금이 쏟아지고, 날개짓 또 한 번에 천만 금이 쏟아지고”

할머니들은 할머니들대로 어릴 적 흔하게 들었던 선소리 대목들을 기억해 내기도 했다. 선소리의 내용이란 집 지을 터와 앞으로 그 집에서 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었다. 함께 지경돌

을 들어올리며 다함께 집을 짓는 사람의 집과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참으로 마을 공동체가 대대로 이어온 훈훈한 모습이였다.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그래도 지경 다지기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사십대의 젊은 사람들만 해도 처음 보는 모습이였다. 마을에서 지경 다지기가 사라진 지 사오십 년은 된 것이였다. 옛 그리움에 취해 지경 다지기를 하는 노인들 틈에 젊은 사람들이 끼어, 마을의 어린아이들도 그 틈에 끼어 함께 돌을 들어올리는 드문 경험을 했다. 한쪽에서는 전날 잡은 돼지로 국밥을 끓이고 고기를 굽고, 통으로 받아온 막걸리를 마시고, 떡과 음식을 먹으며 신나는 잔치가 벌어졌다.

이게 ‘집’이구나 싶었다. 업자에게 평당 얼마에 맡겨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복을 빌며 함께 땀을 흘리는, 그게 바로 집이라면 집이였다.

지붕에 흙을 받던 날도 마찬가지로였다. 진쇄를 받는 날도 마을 사람 대부분이 올라와 함께 땀을 흘려주었다. 짚과 황토를 버무린 흙무더기 앞에 동그랗게 앉아 맨 처음 사람이 동그란 호박 크기로 흙을 알맞게 이긴 뒤 옆 사람에게 건네주면 그 사람은 또 옆 사람, 그렇게 한 바퀴를 돌면 어느새 흙은 차진 흙이 되고 그런 뒤에 기운 센 사람이 흙을 지붕 위로 던져 올리면 지붕 위에선 그 흙을 받아 지붕 위에 골고루 깔아나갔다.

집을 지으며 잔치를 세 번했는데, 지경 다지기를 하던 날, 진쇄를 받던 날, 그리고 집들이를 하는 날. 집들이를 하는 날은 어색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선물이나 봉투는 일체 사양한다는 사실을 거듭 거듭 알린 뒤에 했다. 흥가분함을 넘어 맞는 일이다 싶었고 사실 그랬다. 그렇게 서툴고 느린 과정을 통해 마침내 집이 세워졌다. 나무로 불을 지펴야 하는 방 두 칸과 부엌, 그리고 흙과 돌을 쌓아 만든 둥근 모양의 기도실과 죽데기로 만든 변소. 모두 허름한 모양이지만 그만큼 편하기도 한 집이 꿈같이 과분하게 마침내 세워졌다.



기도실 지붕에 엮을 이엉을 엮는 마을분들

어리석음과 이웃하는 집

사람도 태어나면 이름을 갖는데 어렵게 선 집에 이름을 지어 주고 싶었다. 이현주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인우재'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 한문으로는 '이웃 린(隣)'에 '어리석을 우(愚)'자를 합한 것으로 '어리석음과 이웃하는 집' '어리석음과 가까워지는 집'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다. 한마디로 하면 '바보집'일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했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담긴 이름이었다. 계산에 빠진 영악한 삶을 내려놓고 본래의 나를 되찾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이름, 집의 의미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우재로 올라간다. 책을 읽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조용히 묵상에 잠기기도 한다. 지계를 지고 산으로 올라 나무를 하기도 하고 마당에 풀을 뽑기도 한다. 처음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좋아 오히려 불편했지만 그 또한 내 영혼의 노동이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편하게 갖게 됐다. 농부가 땀흘려 자기 땅을 가꾸듯 나 또한 내 마음 밭을 가꾸는

것이라고.

이따금씩 아는 분들이 인우재를 찾아 쉬어간다. 일부러 인우재를 알리고 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우재는 묻혀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집이 될 것이다. 지치고 피곤한 이들이 자연에 들어 고요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회복하는, 그렇게 쓰이고 있고 그렇게 쓰일 것이다.

‘무소유욕으로 가는 길’임을 인우재에 오를 때마다 나 자신에게 확인시키곤 한다. 무욕의 길, 내 걷는 길이 가볍고 환한 무욕의 길이길 원한다. 가을에 떨어진 알밤을 청살모와 나누는, 감잎과 대추나무 잎을 간지르는 햇살에 마음까지 다 눈부셔하는 그런 마음이길 원한다.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을 통해 정이 들대로 든 마을 사람들, 내 좋은 이웃들... 인우재가 준 가장 귀한 선물이라. 나이와 신앙, 직업을 떠나 친구처럼 친숙하게 여겨지는 분들이다. 집을 지으며 우리는 오히려 어딘지 숨어있었던 마음의 답을 기꺼이 허문 것인지도 모른다. 무엇인가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허문다는 것, 내가 세우는 것이 무엇이고 부지 중 허무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돌아볼 일이다.